전주병, 김성주 · 정동영 개소식 세몰이

김 예비후보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 이루겠다"
정 예비후보 "전북정치를 중심으로 세워놓겠다"

김성주 예비후보

정동영 예비후보

전북 정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최고 격전지 중 하나인 전주병에서 김성주-정동영 예비후보 간 세몰이가 한날 열린 개소식을 통해 본격화 되고 있다.

4·13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지난 12일 전주시 덕진동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정 예비후보와의 결전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전주을 이상직·익산갑 이춘석 예비후보와 해외 출장 중인 송하진 도지사를 대신해 부인 오경진 여사 등이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자신과 정 예비후보를 '과거와 미래' 인물로 규정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전북은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전주병(덕진)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호남정신을 세우고 전북이 호남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권을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유권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유일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성주가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1시간 앞서 진행한 국민의당 정 예비후보 세몰이도 후끈 달아올랐다.

정 후보의 개소식에는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당직자,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전병관 전 뉴욕한인회장, 유상두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및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전북에서 언제, 누가, 일어서서 '아니요'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북 정치를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세워놓겠다"고 전북 정치 부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땀 흘려 일한 근로자들이 대접받고 더 이상 좌절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전북이 정치의 중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형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박대통령 선거개입 즉각 중단 촉구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방문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며 정치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을 한 달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시급한 국정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이 굳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여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친박 후보와 악수하는 등의 행보는 명백한 관권선거다"면서 "박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는 배신의 정치 심판과 11월엔 '진실한 사람 선택 등' 발언을 하고, 2014년 7·30 재·보선과 6·4 지방 선거때도 특정지역을 방문해 특정후보를 편든 발언 등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성 언행 중단을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국민의당 정치신인 안심번호 여론조사 반발

도내 예비후보들 "일부 정치 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

국민의당 정치신인들이 경선과 관련된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익산갑 고상진, 익산을 김연근, 남원 순창 임실 김원종, 이성호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일부 정치 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발끈했다.

이들은 "숙의배심원제를 반대하고 100%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과거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구태이자 우리가 결별하고 뿌리뽑고자 했던 바로 그 행태들이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100%여론조사를 주장하는측 다수가 통합이전 국민회의 소속의 후보들로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신진인사를 전면 배치하겠다는 당초 안철수 대표의 공언을 무력화시키기위함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한다. 숙의배심원제는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서 본선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제3정당의 성공으로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국민의당 창당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들은 당내에서 기득권만 보장받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합당이전으로 돌아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국민의당 창당정신을 인정하고 부합한다면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될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중대결단 운운으로 새정치를 열망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조속히 본인들의 거취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면서 "신진인사를 통해 낡은 정치 청산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 마련하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숙의배심원단과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50:50 적용해 줄것을 공관위와 선관위에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3.11 창당정신에 입각한 숙의배심원제 100%에 의한 경선방식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특정의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경선을 위해 중앙당 지도부와 도당 지도부의 협의에 따라 숙의배심원제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50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었다.

/신광영기자

박종길 예비후보, 익산시 직면사항 분석 방향 제시

새누리당 박종길 국회의원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전라북도 건설회관 6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4.13 총선 예비후보자 지역별 비전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4·13 총선 예비후보와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비전발표회를 개최했고 총 10명의 발표자 중 6번째로 나선 박 후보는 익산시가 현재 직면한 사항을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로 분석하여 발전방향과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익산은 지리적 여건과 문화 자원이 풍부하며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것이 강점이지만, 도시 인구의 지속적 감소 관광 및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태릉선수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출신답게 문화, 예술, 스포츠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조배숙 예비후보, 백제 유적 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조배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을)는 "'명품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국제식품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에 이어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 후보는 "처음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등재 얘기를 꺼낼 때만 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익산이 최초로 발의를 했고, 부여와 공주도 같이 공동등재를 제안해서 결국 이루어 냈다. 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익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왕궁유적지구 별 보기 관광 마케팅 및 어둠체험관 운영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연계하여 상설 문화예술공연장 건립추진 등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열 익산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

정헌율(국민의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정 후보)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농업발전 및 농가지원을 위한 '농업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새로운 수익구조를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농업행정 전담부서가 절실하다"며 "농업행정 부서를 한 곳에 집결시키는 '농업행정수도'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농업행정과 지도사업을 분리시키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를 시작으로 농업의 집중화, 특성화, 전문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면서 "옛 군청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관련 모든 부서를 집결시켜 그 파급력을 극대화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작목지도를 강화하고 '읍면별 특화작물 보급',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등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정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익산 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전정희 의원이 지난 12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어양동 엘드타운 3층에서 오후 5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박지원 의원과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 정헌율·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개소식에서 "전정희는 약하지 않다"며 "겉으로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쉬우나 부드러움 속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익산 구석구석에는 전정희가 지난 4년간 익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뿌려놓은 씨앗들을 발견하기 쉬울 것"이라며 "이런 씨앗들을 키워 익산 발전의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우러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해 떠나는 익산이 아닌 '돌아오는 익산'을 만들겠다"며 "공동체 익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종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종회 국민의당 예비후보(김제·부안 선거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정동영 전 장관, 정대철 전 상임고문, 유성엽 의원, 김관영 전북 도당 위원장 등 중앙과 전북의 유명 인사 및 지역의 유권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3시에 개소식을 앞두고 정동영 전 장관은 "김종회 후보님은 '대학'이라는 고전을 통해 정치의 참 의미를 제게 가르쳐주신 스승"이라며, "오래 전부터 공동선을 주장하는 김종회 후보님의 큰 포부가 새 정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당과 김제 시민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회 후보는 끝까지 노력하여, 긴 시간 동안 전북에서 이어져 오던 기득권 야당의 태만한 정치를 심판하고, 지혜와 상생, 용기의 호남정신을 중앙 정계에 불어넣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정호 예비후보, "완주군을 완주시로 만들겠다"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무진장·사진)는 13일 완주군을 인구 15만의 도농상생 복합도시인 완주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테크노밸리,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의 첨단 산업기반이 구축돼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카본클러스터, 탄소나노튜브 바이오센서 연구센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탄소 소재개발 연구기반 구축 등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부품의 특화분야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내 농생명 관련 기관 및 첨단연구소 입주로 미래식량 사업의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으다. "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완주군 테크밸리 1차와 2차,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시켜 완주군을 도농복합 명품도시로 조성하도록 국회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4.13 선거 RUN · RUN · RUN

이기동 예비후보, "당 초심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국민의당 이기동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은 "국민의당이 야권연대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초심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민의당은 낡은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정치, 국민에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 위기극복에 대응해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출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당을 흔드는 어떠한 행동도 그쳐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변화와 개혁은 외면한 채 대의를 위한 단결보다는 구 정치인 몇몇의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때 일수록 초심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답할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정치판에서 미래의 봄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뼈를 깎는 각오만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소탐대실로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자"고 했다

/신광영기자

이관승 예비후보, 자영업자 지원 공약 제시

국민의당 이관승 예비후보(전주갑·사진)는 13일 자영업자 영업권과 수익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 살리기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소득 보장과 자영업의 활성화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수단"이라며 "각종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는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와 가맹본부·본사 간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해마다 문을 여는 점포 100만개 가운데 50만개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며 "영세자영업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말미암아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다"며 "향토기업을 경영했던 경험을 살려 영세자영업자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김광수 예비후보, "최선 아니라면 차선의 인물 선택을"

국민의당 김광수 예비후보(전주갑·사진)는 최근 같은 당 소속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오르지 위만 쳐다보고 어떻게 공천 한 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았다"며 "이번 총선만큼은 인물과 정책을 보고,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인물이라도 선택해 국회가 국민들의 희망이 되며,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낮은 투표율과 관련,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투표율이 높은 계층들에게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층을 상대로 한 각종 정책들이 사장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도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과 전혀 무관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청년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정영수기자

유종근 예비후보, 독거 노인들 고충 들어

무소속 유종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는 지난 12일 완산구 중화산동 양문교회에서 마련된 '전주시 나누미봉사단 독거노인 무료급식 행사'를 찾아 봉사활동과 함께 독거노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유종근 예비후보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는데 제약요소가 많다"며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난 대선 때 노인수당을 내세워 득표를 하고 정작 당선 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다"면서 "유종근은 대통령 경제고문과 전라북도지사직을 통해 경제정책입안과 지역예산 운용을 모두 해본 경험이 있다. 당선되면 국회의원 자격으로 낭비되는 우리나라 예산을 찾아 노인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